

# GCC 변화의 바람을 타라

— 중동 부국 소매시장, 헬스케어, 교육관련 상품 및 서비스 부문 유망 —

## ‘오일달러로 부를 축적한 중동, 최근 유가하락으로 산업다각화 가속 추진’

최근 4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GCC(Gulf Corporation Council; 걸프협력위원회) 6개국은 전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등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14년 6월말 이후 50달러대로 유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원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각국 정부의 산업다각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GCC 시장은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29.4%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역시 전세계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 역시 GCC 6개국 모두 4만 달러가 넘어 세계 평균(13,100달러)을 크게 상회한다. 더구나 출산율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30년경에는 6,3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GCC 회원국들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원유수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고 자국민 실업률이 높은 점도 고민 중 하나로 뽑힌다.

이에 최근 GCC 각국은 비석유 부문 활성화를 위한 산업다각화와 자국민 고용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두바이 엑스포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등을 앞두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GCC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무역파트너, 우리의 투자는 아직 미미’

우리와 GCC간의 무역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며, 무역비중의 11%를 차지

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하는 무역규모와 달리 직접투자 규모는 48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투자하는 전체에 1.2%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 대부분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 ‘카타르 월드컵 및 두바이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와 더불어 젊은 인구와 여성 사회진출 증가, 관광산업 확대로 소매유통시장이 유망할 전망’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점에 주목해야 하는가? 향후 GCC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0~14세 인구 비중이 25~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한 여성 의류 및 화장품, 가공식품 등 각종 소매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CC국가는 더운 지역이다. 이점에 주목하자. 무더운 날씨는 독특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질병을 동반하게 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질병에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힘을 실어 보는 건 어떨까. 또한,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교육 분야 투자 증가를 대비한 교육기자재 및 e-러닝 등 스마트교육 서비스 시장 진출 역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GCC!

변화의 바람을 타라

Q. GCC란, 걸프협력위원회로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을 말함



Q. 성장하는 GCC 시장의 현재와 잠재력

전세계  
GDP 비중

2.2%

1인당  
GDP

4만 달러  
상회

원유  
매장량

전세계  
29.4%

빠른  
인구성장

2030년  
6,300  
만 명

2020년  
두바이 엑스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Q. 소매유통시장과 사회 · 교육서비스업에 주목하라.

가공  
식품



여성의류 및  
화장품



의료 및  
헬스케어



교육기자재 및  
e-러닝

